

수질환경 보존 및 대책(생활하수를 중심으로)

자치단체명 : 대한민국 충청남도

발표자명(소속명) : 임영목(대천중학교-맑음이)

활동명 : 수질환경 보존 및 대책(생활하수를 중심으로)

활동 기간 : 2004. 6. 25 ~ 2004. 7. 6

활동 장소 : 대천중학교

활동 참가인원수 : 7명

활동을 시작한 경위 : TV나 신문 또는 안내책자 같은 매체를 통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를 접하던 중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의 약68%나 차지한다는 사실에 경악하여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.

활동 결과 : 주변의 수질오염 상태를 조사하고 정화활동을 펼쳤다.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한 세제 사용 줄이기, 음식 쓰레기 줄이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홍보하였다.

발표 요지 :

물은 지구의 약70%를 덮고 있고 대부분의 생물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에서 여러 중요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 또한 가정용수, 공업용수, 농업용수 등으로 쓰이고 있다. 우리는 물 없는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. 그런데 지금 세계는 심각한 수질오염에 시달리고 있다. 낙동강 페놀 사건, 일본의 이타이이타이 사건, 미나마타 사건, 스위스의 레만 호 사건 등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 의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.

그렇다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?

먼저 수질오염에 대해 알아보자. 수질오염은 생활하수, 산업폐수, 농축폐수에 의해서 발생한다. 생활하수는 약68%를 차지하며 세제, 분뇨, 음식물 쓰레기 등이 주요인이다. 산업폐수는 약30%를 차지하며 중금속이 주요인이다. 농축폐수는 가축의 분뇨가 주요인이다. 산업폐수나 농축폐수는 정화시설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나 생활하수는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.

그렇다면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.

가. 맑은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.

①환경보호는 나부터 실천한다.

②내 가정부터 물 오염을 줄인다.

나.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.

①합성세제 와 일회용품은 되도록 적게 사용 한다.

②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청소한다.

③하수구나 간이 침전지는 자주 청소하고 하수도 유입구나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.

④음식찌꺼기는 따로 버린다.

다. 물 오염 량 줄이기

①음식물 : 보통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은 많은 과정을 걸쳐 요리를 하기 때문에, BOD가 상당히 높다. 디스포저 (주방 오물 분쇄기)를 이용해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서, 하수구로 흘러 보내는 것도 오염 발생의 큰 원인이지만, 음식물 국물이 수질오염에 끼치는 영향 또한 상당하다. 또한 남은 튀김용 기름을 버리는 것은 엄청난 오염의 주요인이다. 기름은 반드시 휴지나 신문으로 닦아낸 후 설거지를 한다. 싱크대의 기름망을 자주 청소해 주는 것도 물 오염 줄이기의 한 방법이다

②합성세제 : 합성세제는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물에 녹은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, 물 위에 거품을 만들기 때문에 산소가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.

③유해 화학물질 : 대개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면 공장이나 화학실험실 등을 생각하기 쉽다.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것들이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. 가정에서 쓰고 버린 페인트, 구두 광택제, 하수구가 막혔을 때 사용되는 강산성의 각종 화학물질, 변기 세척제, 가구 광택제, 이런 약품을 하수구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. 이런 약품은 염산이나 양잿물을 하수구로 직접 쏟는 것과 다를 없을 정도로 유독하다. 이런 물질은 물 속에서 유기물을 분해 시켜 주는 미생물을 죽여, 하천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리고, 결국 수질오염을 초래하게 된다.

이상과 같이 각 가정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서 우리들의 후손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.